

## 도청별관 완전 철거기로

### 공대위 '5·18상징물 건립' 수용

#### 박주선의원 중재안 최종 타결 임박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 내 옛 도청 별관 철거를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여온 5·18 단체들이 별관 철거에 동의하고 농성을 해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1일 옛 도청별관 철거-보존 갈등의 중재를 맡아온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옛 도청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박 의원이 제안한 '별관 철거, 5·18 상징물 건립'안을 수용기로 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은 ▲농성 해제 및 철수 ▲아시아 문화전당 원래 설계대로 공사 재개 ▲광주시내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상징조형물 건립 및 건립지문위에 5·18 단체 대표 참가 ▲아시아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

교류원 운영자문위에 5·18 단체 대표 참여 ▲5·18 30주년 기념행사 때 문 광부의 지원추가 및 지원내용 5·18 단체와 협의 ▲공대위에 불필요한 오해가 있게 한데 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유감 표명 ▲공사가 지연된데 대한 공대위의 유감 표명 등 7개항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5·18 유족회(회장 정수만), 부상자회(회장 신경진), 구속부상자회(회장 양희승) 등은 이날 각 단체별로 이사회를 갖고 박 의원의 중재안을 최종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단체중 구속부상자회는 11일 박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단체들은 회

원들로부터 '원형보존', '공청회 개최 후 최종 입장 결정' 등의 이견이 나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공대위 지도부가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조만간 별관 철거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중재자인 박주선 의원은 공대위측 최종 답변을 기다려 중재안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측에 넘길 예정이며 추진단이 동의할 경우 양측이 서명날인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최종 중재안이 제시될 경우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최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이 "별관 철거, 상징물 건립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힌바 있어 추진단의 동의는 확실시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범시민지원단 발대식'에서 박광태(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광주시장, 정의화( \* 세번째) 유치위원장을 비롯해 시민지원단원들이 대회 유치를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2015년 하계 U대회 개최지 결정 D-100

## 집행위원 맨투맨 공략 나선다

#### '범시민지원단' 발대

세계 최대의 '대학생 스포츠 제전'이자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인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5월23일)이 12일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대회 개최의 분수령인 개최지 현지실사(4월6일~9일)에 대비

해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결집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해외 유치전을 본격화하는 등 대회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시민 15만명으로 구성된 '2015 광주 하계U대회 유치 범시민지원단'은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발대식을 갖고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정의화 유치위원장(한나라당 국회의

원)을 비롯 범시민지원단 리더 1천 5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결의했다.  
특히 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들의 광주 실사 일정이 당초 보다 20일 앞당겨짐에 따라 차질없는 유치·홍보전략에 마련에 나섰다.  
시는 FISU 실사단이 경기장 등 인프라, 정부의 대회 지원의지, 시민 유치열기를 점검하는 만큼 스포츠 인프라와 유치 열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등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탠다. 유치단은 하얼빈 현지에 홍보부스를 설치, FISU집행위원 27명을 상대로 U대회 광주 개최의 당위성과 스포츠 인프라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 집행위원들을 초청, 'Korean Day' 행사를 갖고 'U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된 도시 광주'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 6개국 8개 도시가 대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FISU 관계자들과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경험과 노하우 등 강점을 토대로 실속과 유치전략을 마련했다.

광주 U대회 유치위원회는 오는 17일~28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2009 동계 U대회에 참석, 해외 득표전을 펼친다.  
박 시장과 정의화 유치위원장으로 구성된 광주 U대회 유치위원회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등이 동행, 정부의 차원의 지원의지를 밝히

이를 위해 개최지 결정 표결에 참가하는 FISU 집행위원 27명 전원을 상대로 맨투맨 홍보전략을 마련한데 이어 유치위원들을 팀으로 나눠 유럽권(13명), 아시아권(7명), 아프리카권(4명), 미주지역(3명) 등 권역별 공략에 나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하계 U대회 공식 엠블럼 확정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상징하는 공식 엠블럼(사진)이 확정됐다.  
(재)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위원장 정의화 국회의원)는 11일 유니버시아드를 상징하는 U자 모양에 광주시 상징인 '빛'을 동양적인 붓 터치로 형상화한 엠블럼을 최종 확정, 공

개했다.  
엠블럼은 또 빨강·초록·검정·노랑·파랑 등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로고의 색채를 응용하고 빛의 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별을 모티브로 삼았으며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신을 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호남고속철 오송~광주 2014년 완공

#### 국토부 밝혀...광주~목포는 늦어도 2015년 마무리

오송~광주 구간 호남고속철도가 오는 2014년 완공된다.  
그러나 광주~목포 구간은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 등으로 완공 시기에 대한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2012년 호남고

속철도 완공'은 2년 이상 늦어져 '반쪽 공약'이라는 논란이 부상할 전망이다.  
11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오는 2014년에 완공하기로 확정된 상태"라며 "호남고속철도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완공 시기는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 등에 따라 최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늦어도 이달 내에는 호남고속철도 수정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웅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 을)도 "최근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 완공 시기가 사실상 2014년으로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광주~목포 구간은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와 지자체와의 협의의 등에 따라 완공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늦어도 2015년에는 완공될 예정이며 논의의 결과에 따라 오송~광주 구간과 같은 2014년에 완공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예산 문제와 나주 금성산 관통 문제, 나주역 정차 문제 등과 맞물려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3·1절 전국마라톤대회

# CATS

한국어로 만나는 최초의 '캣츠' 한국공연  
2009년 4월 광주에서 그 역사적인 막이 오른다!

2009. 4. 21 (화)~26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 062) 220-0541 | 1388-0766  
문의처: 티캣이루, 옥션티켓, 티캣링크